

2017년 신년업무보고회 시장단 요청사항

2017. 2. 9(목)

1. 서울디자인재단

시 장

- ① DDP가 동대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고 지역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함.
- ② 본청에서는 경찰기동대 부지자리를 서초구청과 잘 협의하고 확보하여 봉제, 패션, 디자인 박물관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금년 안에 하기 바람.
- ③ DDP가 수익에만 매달리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지 점검하고 지난 3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고민하기 바람.
- ④ 패션위크와 디자인위크는 국제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⑤ 서울이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도시인지 점검해야 함(기조실).
- ⑥ 도시건축비엔날레는 한 달 이내 각 부서들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기 바람.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공사 진척 현황과 준비 현황이 궁금함.
- ⑦ 새활용플라자는 업사이클의 세계적인 성지가 돼야 함. 유명한 프라이탁을 살펴보고 역량을 살펴봐야 함. 용답역에서 들어오는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고 개관 후 부족한 공간은 추가 건축계획도 가져야함. 세계 최초의

집단적 업사이클 단지를 만들어 TV에도 집중적으로 나오게 홍보해야 함. 개별여행 관광객에도 기여할 수 있음.

- ⑧ 서울이 장애인 여행자가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안준호 국장님, 이근 대표님, 김병태 대표님께서 김포공항에서 특정호텔까지의 여정을 직접 휠체어를 타고 경험해 보시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시에 확장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시기 바람.
- ⑨ 모빌리티 컨퍼런스는 성과가 있게 제대로 해야 함. 이런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장을 오갈 때의 자전거, 보행, 버스, 지하철 연관 속에서의 가장 최적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교통본부와 집중적으로 의논하여 보여주기 바람.

행정1부시장

- ① 디자인재단이 여러 분야를 맡고 있는데 시와 협업할 사항은 바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해 나가야 함.
- ② 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창구가 되어 각 부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함.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타임스케줄과 전체 계획서가 나와야 함.
- ③ 디자인정책과와 협력하여 시민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디자인을 확대하여야 함.

행정2부시장

- ① 비엔날레는 서울시 전체의 중요한 기획이므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총괄하더라도 서울시 각 기관의 역할을 설정하고 관심을 가져야 함.

2017년 신년업무보고회 서울디자인재단 요청사항 전문

□ 시장님

- 두 기관 모두 과거보다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것 같음.
디자인재단은 DDP 경우 내부적으로는 안착이 되었는데 DDP 주변에 어떠한 확산과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조사하고 연결시켜야 함. 주변의 상권과 지역에서는 DDP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삶과 지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음.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본청에서 해야할 일은 경찰기동대 부지자리를 확보하여 봉제, 패션, 디자인 박물관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을 고민해보았으면 함. (DDP에 간송이 들어와 있지만 디자인박물관은 아님. 런던이나 헬싱키를 가보니 큰 공간은 아니지만 박물관이 있음.) 쉽게는 안 되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서초구청장만 잘 설득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금년 안에는 미리 설계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음.
- DDP의 자립성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수익에만 매달리면 DDP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지난 3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성찰해 보고 앞으로 DDP가 어떻게 갈 것인지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함.
- 패션위크는 전보다 감독을 선정하여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있음. 그렇지만 욕심에는 미달임.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압도적인

● 정무부시장

- ①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시 5년의 축적된 성과가 잘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건축과 디자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발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드러나는 행사가 돼야 함.

● 기획조정실장

- ①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전 실·국이 협조할 사항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논의주기 바람.

● 문화본부장

- ①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사업이 좀 더 풍부하게 구성되도록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디자인산업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많은 디자이너가 참여하도록 확대해야 함.
- ② DDP는 재정자립보다는 디자인산업 활성화하는 목표에 더 충실해야 하고 이는 출연금 규모를 정할 때 고민해야 함.

● 젠더자문관

- ① 디자인재단은 미의 기준과 다양성 존중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과 소통해야 함으로 디자인 기획단계에서부터 성평등한 관점에서 점검을 하기 바람.

패션위크 위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3대 패션위크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디자인위크도 마찬가지임. 국내에서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동경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과연 우리는 아시아의 중심인가 의문이 듦. 그렇게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패션디자이너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게 만들어야 함. 우리끼리만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중심일 뿐이지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총회) 멤버인 홍콩의 아주 패션의 큰 회사 사장이 딸이 패션디자이너인데 농담으로 가게 하나 차리라고 했음. 런던의 어느 장소에 가보면 한국 사람도 있고 전 세계에서 와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중심성이 만들어질지 의문.

-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사업을 하고 힘든데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함. 주거 문제 등 함께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함. 궁극한 것이 스타트업 외국인만 모여서 단지를 만들어줬는데(20~30개 팀) 이 사람들 만나서 서울에서 살려면 뭐가 문제인지, 계속 살 것인지, 정리하고 나갈 생각을 할지 기초실 등에서 인터뷰해보고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충분한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저 판단할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함. 외국인이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되어야 경쟁력이 생기고 서울의 삶의 질이 좋아짐.
- 도시건축비엔날레는 한 달 이내에 각 부서들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음. 특히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9월에 사용하려면 적어도 7월에는 완공이 되어야 함. 공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프트웨어들이 다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해야 함.

- 새활용플라자는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의 세계적인 성지가 될 수 있게 해야 함. 왜냐하면 유일하기 때문. 사기업으로 보면 프라이탁에 가서 미리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람. 용답역에서 들어오는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람. 오픈하고 나면 오픈 직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뭘 보완하고 확충할지 예를 들면 업사이클 업체가 공간이 부족하면 옆 공간에 추가 건축계획을 바로 가져야할 것임. 세계 최초의 집단적 업사이클 단지인데 TV에도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게 하여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관광 쪽에도 기여할 수 있음. 특히 FIT(개별여행자) 관광객에게 선호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업사이클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상품들이 굉장히 살만한 것들이 많을 것임. 이런 연결고리를 잘 협업해서 만들기 바람.
- 유니버설 디자인도 관광본부장님 제가 서울을 장애인 관광의 천국을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는지? 직접 인천공항에서 버스나 지하철로 타고 호텔에 들어와 묵어보시고 안준호 국장님 덩치가 크시니까 튼튼한 휠체어를 구비하셔서 이근 대표님과 관광마케팅 사장님과 실제로 타보시기 바람. 과연 서울이 장애인이 관광하기에 좋은 도시인지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접 해보셔야 함. 호텔에 휠체어를 쓰려면 있는지 생활하기 편리한지 식당은 잘 되어 있는지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고 뭘 개선해야 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람.

- 뮌헨은 장애인을 위한 여행책자가 있음. 런던도 지하철에 잘 표시가 되어 있음. 표지도 제대로 해야 하고 휠체어도 구비되어야 함. 전에 갑자기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봤는데 타보니 다 알게 됨. 직접 세분이 경험하셔서 앞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시전체에 확장될지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람.
- 성수동 수제화도 옛날에 디자인재단이 시작을 했는데 중단이 됐는지 소식이 없음. 모빌리티 컨퍼런스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성과가 있게 제대로 해야 함. 국제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직장에 오고 갈 때까지 자전거와 보행과 버스와 지하철 연관 속에서 어떻게 가장 최적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교통본부와 집중적으로 의논하셔서 보여주기 바람.

□ 행정1부시장

- 디자인재단이 정착이 되는 단계인데 워낙 여러 분야를 많이 맡고 계셔서 체제를 바꾸면서 일하기 매우 어려우실 것 같음. DDP도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시에서 협약하여 건축비엔날레나 패션위크, 디자인위크 등을 맡고 있음. 시와 협업하는 사항은 그때 바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함. 바로 해결해 나가야 실행이 가능.
- 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창구가 되지만 문화본부, 교통본부에서 공간을 확보해야 할 일이 있음. 9월1일에 하려면 타임스케줄과 아웃라인이 나와야 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간에 쫓길 것 같음. 각 실국의 역할이 무엇이고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도시공간개선단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주지시고 협조를 구해야 함.

- 디자인의 여러 의견이나 평가가 다양한데 시민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디자인을 확대해야 함. 얼마 전 디자인 거버넌스 행사에 최종 5개를 선정했는데 시민참여 열기가 있었음. 전문가나 아마추어 등 자문그룹이 10개가 있는 등 플랫폼 만드는 것을 디자인정책과 변태순 과장이 가져오셨는데 디자인재단과 협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보상을 확대해 주고 실현해 줘야 함.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고 참여하는 디자인을 확대했으면 좋겠음.

□ 행정2부시장

- 비엔날레가 도시건축 분야 부서에서만 국한해 논의되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도시 전체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하며, 디자인재단에서 총괄해서 진행하지만 문화 관련 부서에서도 주의 깊게 봐주시고 이 논의가 확대되어 각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담을지 관심 가져주기 바람. 세계건축가연맹회의라는 큰 회의가 같이 겹쳐 여러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무부시장

-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재밌는 구성인데 현장이라는 사이트 자체와 전시공간이 흥미로워 관심을 끌 것임. 각국의 다양한 건축가가

오시는데 서울시가 5년 동안 해왔던 축적된 성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가을에 있을 예정. 리딩하는 도시로서의 서울(상을 많이 받음)이 잘 드러나게 하고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도시가 어떤 트렌드인지, 어떤 패러다임으로 서울이 가고 있고 도시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하는지 보여줘야 함. 단순히 건축과 디자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발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행사가 되길 부탁함.

□ 기획조정실장

-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콘텐츠 구성안이 거의 완료되었음. 이 행사는 서울디자인재단과 도시공간개선단만의 업무가 아니라 올 하반기 서울시의 가장 큰 행사이므로 서울시 전체 실·국이 모여 관련 행사를 과제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확대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 공간개선단과 협의하여 부족한 것이 있으면 논의하길 바람

□ 문화본부장

- 도시건축비엔날레는 디자인재단에 사무국을 만들고 디자인재단의 역량을 동원시켜 진행하고 있음. 관련한 사항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해소를 해나가고 있음. 사업들이 좀 더 풍부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 또한 이 시기에 '서울디자인위크'도 동시에 개최하여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도시건축비엔날레를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이유는 디자인산업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하기 때문임. 많은 디자이너와 디자인

조직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다만, DDP 공간 재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음. DDP가 재정자립을 해야한다는 과제를 부여했는데 디자인재단에서는 공간들을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많이 배치해야는 상황임. 재정자립보다는 디자인산업을 활성화하는 목표에 더 충실해야한다고 생각함. 교육, 홍보,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디자인재단 출연금 규모를 정할 때 고민이 필요함.

□ 젠더자문관

- 디자인은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디자인이라고 하면 건축이나 패션 같은 공간을 떠올리지만 시간도 결합이 되어 있음. 디자인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자연, 인간 문명이 상생함. 디자인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를 잘 담아내고 있음. 다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훌륭한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함. 젠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날 획일적이고 서구중심적인 미의 기준이 문제임. 디자인재단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함.
- 예를 들어 도심재생 사업의 일원이었던 돈의문 가림막 벽화는 공사장 가림막을 문화예술로 디자인한 훌륭한 사례였음. 그러나 디자인에는 의도가 있는데 시민에게 잘 전달이 안 됨. 결국

소통의 부족이 문제의 원인. 소통이라는 것은 디자인의 의도를 잘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민들 사이의 어떠한 역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함. 사회적인 약자를 재현할 때는 상당한 민감성이 필요함. 디자인의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 결과 수정이 쉽지 않음. 그러므로 기획 단계부터 성평등한 관점에서 점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